

주거방식 조사와 ‘건축계획학’

오쓰키 도시오 (大月敏雄)

도쿄 대학

(번역: 김현정)

1. 곤 와지로의 ‘주택과 생활’ 연구

보통 생활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건축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나기타 구니오 (柳田国男)로부터 시작되는 민속학의 계보를 잇는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곤 와지로 (今和次郎)의 역할은 컸다. 도쿄미술학교 (현 도쿄예술대학) 도안과를 1912년에 졸업한 곤은 와세다대 (早稻田大) 건축학과에 채용되어 1917년부터 민가보존연구회였던 ‘백모회 (白茅会)’에 들어가 야나기타 구니오와 함께 민가 조사에 참여하여 여러 스케치를 남겼다. 그 성과는 1922년에 『일본의 민가-전원생활자가 사는 집 (日本の民家-田園生活者の住家)』이라는 책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민가’라는 표현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곤의 방법론이다. 메이지 (明治) 시대 이후에 시작된 일본 건축학이 주안을 둔 것은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이전에 실제로 세워졌던 유사 사례를 모아서 그 규모나 배치를 연구하는 일이었다. 실학으로서의 건축학에 요청되었던 것은 설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었는 것이다. 때문에 근대 이후 새로이 요구된 관공서나 공공시설 등과 같은 근대적인 건축물 설계에서 구미의 실례를 참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었다.

하지만 건축학자가 아닌 도안과를 졸업한 곤의 접근방식은 약간 달랐다. 민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상을 스케치라는 독특한 공간구성 표현수단을 가지고 이해하며 해석한다는 방법론을 취했던 것이다. 목적 자체가 ‘건축설계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획득’이 아닌, ‘눈 앞에 나타나는 건축을 통해 생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해석을 제시’하는데 있었다는 점에서 종래 건축학의 접근방법과는 크게 달랐다.

또한 ‘주택과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도 크게 상이하였다. 메이지 시대 이후의 건축학에서 ‘주택’은 이른바 ‘건축’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은 목수나 도편수가 담당하는 일이지, 건축가로 불리우는 학사 출신의 엘리트 기술관료가 손댈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당시에는 지배적이었다. 하물며 보통 주택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와 같은 ‘생활’ 현상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는 지극히 소수였다. 메이지 시대에는 다수의 주택 건축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목수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거나 메이지 시대 이후에 개량된 변소, 난방기기, 부엌관련용품을 어떻게 주택에 짜 넣어야 하는지 해설한 것이었다. 주택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생활의 실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요구되는 주택의 설계를 새롭게 고안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건축학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근대건축운동의 일환으로서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 요소로서 주택의 개선 및 개량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운 주택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많은 건축 관계자들이 주택 분야에 실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간토(關東)대진제 전후였다.

일본에서 ‘주택’이 주목받게 된 것은 내무성 지방국 유지가 1908년에 『전원도시』를 출판한 이후이다. 곧이 백모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다이쇼(大正)시대 중엽 무렵에는 도쿄(東京)에서 차츰 ‘주택문제’가 ‘도시문제’라는 문맥 안에서 논해지게 되었으며 영국인 에버니저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주장한 전원도시적인 주거환경에 찬동하는 추세에 있었다. 『일본의 민가』부제가 “전원생활자가 사는 집”이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던 주택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의 경기 호황으로 인해 도시에 집중되던 사람들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은 어떠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 속에서의 ‘주택’이었으며 이러한 주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에 대해서는 생활을 구미화(서양화)하는 것 외에는 논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곧이 ‘주택과 생활’에 착안한 것은 분명 당시 건축학에서 한 발 앞선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곧은 1923년 간토대진제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 가설주택을 짓는 판잣집 거주자들의 살림에 주목하여 그 모습을 스케치에 담았다. 그리고 바로 ‘판잣집 장식사’라는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당시까지 관찰, 스케치, 이해, 해석하던 입장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복구 중인 도쿄 거리의 모습을 구성하던 상점과 주택의 실제 설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연구에서 실천으로 전환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특히 도쿄제국대학 야나기시마 세틀먼트(東京帝國大學柳島セツルメント) 건물의 설계는 곧의 연구방법론과 실천론이 도쿄제국대학 관련시설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녔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곧은 1925년에 ‘긴자거리 풍속(銀座街風俗)’ 조사를 실시, 1927년에 ‘조사(고현학) 전람회(しらべもの(考現学)展覧会)’를 개최하였고 1930년에는 요시다 겐키치(吉田謙吉)와 함께 『모더니올로지(고현학)』를 출판하여 간토대진제 복구 이후의 도쿄에서 나타난 새로운 ‘보통’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스케치뿐만 아니라 공을 들여 자료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새로운 사회관찰법이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고현학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관찰의 틀을 제시하거나 지속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작업을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다. 곧은 1922년에 조선총독부의 위촉을 받아 한반도에서 민속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성과는 1924년에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 제1책 민가(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第一冊民家)』로 간행되었는데 이는 ‘보통을 추구’하는 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에 ‘도움’ 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공교롭게도 보여주고 있었다.

곧은 1934년부터 41년까지 농림성 적설지방 농촌경제조사소에 의한 적설지방 농가가족조사와 동윤회(同潤會)에 의한 도호쿠(東北)지방 농산어촌 주택개선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국가와 연결된 이러한 일련의 민가연구 작업은 단순히 보통 생활의 성립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해석론뿐만 아니라 ‘실학’으로서 ‘보통 주택’을 ‘개선’과 ‘선도’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다이쇼시대 생활개선운동의 연장이 군국주의의 침투로 인해 모든 지적 활동을 ‘개선’과 ‘선도’에 수렴시켜왔던 시대 추세에 곧 또한 휩쓸려갔다고 할 수 있겠다.

2. 니시야마 우조의 ‘주거방식 조사’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필자가 아직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시절에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의 후지모리 테루노부(藤森照信) 교수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의 민가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후지모리 교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건축학 중 건축계획학을 창시한 한 사람으로 꼽히는 교토대(京都大) 명예교수 니시야마 우조(西山卯三)는 일찍부터 곧 와지로를 동경하였고 그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스케치를 남겼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니시야마 우조의 저서에는 직접 손으로 그린 많은 스케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배경에 곧 와지로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였다.

니시야마 우조는 1941년에 국가가 설치한 주택영단 연구부에 소속되어 매년 갱신되는 주택영단이 건설해야 할 표준평면도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표준평면도 책정이 태평양전쟁 종전 후의 공영주택표준설계와 공단이 만든 'nLDK'라는 방 배치로 이어졌다. 이를 전후하여 니시야마가 실시한 대량의 '주거방식 조사'를 통해 아무리 협소한 주택에서라도 서민은 먹는 공간과 자는 공간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 '식침(食寢)분리'를 표준평면도 작성을 위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주택영단에서는 이 '식침분리'론이 약간의 예외를 빼면 실제로 적용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전후 공영주택과 공적주택(국철주택, 공무원주택, 전전공사주택 등)의 평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건축계획학이란 현실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습성과 같은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법칙이나 인과관계를 발견하여 이를 새로운 건축설계에 피드백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니시야마 우조가 실시한 '주거방식 조사'는 당시까지 건축관계자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서민의 보통 생활을 대량조사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 누구라도 '듣고 보니 그러네'라고 생각할 만한 '보통' 생활양식을 실학으로서의 건축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세는 지금도 건축계획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요시타케 야스미의 '사용방식 조사'

상술한 바와 같이 곧 와지로의 영향을 크게 받은 니시야마 우조는 주거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건축설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보통'을 추구하기 위한 '주거방식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학으로서의 건축계획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갔다. 한편 패전 직후 도쿄에서는 도쿄대(東京大) 요시타케 야스미가 건축물의 '보통 사용법'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설계의 기초를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화장실과 승강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줄을 서는지,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신발을 갈아신는지 등과 같은 언뜻 보기에 누구나가 평범하게 행하고 있는 동작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가능한 수학적 이론으로 풀어나가는 연구방식이었다. 전후 시설계획학의 기초를 다진 요시타케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사용방식 조사'라 칭하였다.

니시야마 연구실의 '주거방식 조사'와 요시타케 연구실의 '사용방식 조사.'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그들이 눈 앞의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준다. '주거방식 조사'의 주어는 거주자이며 인간의 주체성에 착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니시야마의 시선은 보다 사회과학적이었다. 한편 '사용방식 조사'의 주어는 건물이며 사람은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시타케의 시선은 보다 자연과학적이었다.

이후의 니시야마 연구실의 주거공간 연구는 도시계획과 지역만들기 연구로 발전하여 사람이 주인공이자 생활무대인 환경 총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요시타케 연구실은 주택, 병원, 학교, 박물관, 사무실 등과 같은 건물들의 종류별 사용방식의 특성을 통한 각종 건축설계기준의 설정에 보다 무게를 둔 연구 스타일이 추구되었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전후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각종 건축물들을 대량생산하는데 필수적인 건설보조금을 위한 각종 기준 마련작업이 도쿄대

건축계획연구실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보통'을 해명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건축학은 싫든 좋든 실학으로서의 측면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활' 을 다양한 수법을 통해 밝혀내는 일 자체에 흥미를 갖고 사물과 현상에 대한 해석방식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지극히 지적인 활동을 건축학 속에서 전개한 끈 와지로의 존재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간토대진재 이후의 판잣집 장식사와 전시 중의 주택개선운동과 같은 활동을 통해 때론 실학으로서 '보통에 관한 연구' 를 원용하면서 시대 요청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

또 끈을 사숙한 니시야마 우조가 일본 서쪽지방의 건축계획학을 대표하며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주거방식 조사' 를 널리 알렸다. 이와 달리 국가와 손을 잡고 전후 상당수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시설물들을 계획하기 위해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사용방식 조사' 를 정착시킨 일본 동쪽지방의 건축계획학을 요시타케 야스미가 체계화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이쇼 시대에서부터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 걸쳐 전개된 일본의 건축계획학에서 '보통' 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해되고 해석된 보통' 이 어떻게 가공·이용되었는지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함께 변화해왔지만, 건축학의 실학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요청, 사회적인 요청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했기 때문에 '보통' 을 명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동기가 건축학 내부에 배태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 현재 건축학에서 '보통' 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그다지 '보통 생활' 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표준적' 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보통' 이라는 개념이 우리 주변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겨우 10 여 년 전만 해도 우리들 사회에는 '보통 생활' 이 보통의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의 직장, 거주지, 가족구성 등만 알아도 대체로 어떤 가족인지 상당한 확률로서 추정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모습이 다양화되고 있는 지금 직장, 거주지, 가족구성만으로는 좀처럼 그 사람의 생활방식에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된 것 같다. 이는 건축을 계획하거나 설계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미 보통 가족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속에서 누가 살지 알 수 없는 집합주택의 공간배치를 생각해내야만 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고도경제성장기 때 만들어진 집합주택의 표준적 형태는 지금도 건재하다. 주택의 한 가운데에 현관문이 설치되고 속복도(中廊下)를 거쳐 남쪽 발코니에 접한 거실에 도달하는 기본형태를 없애버리면 대부분의 맨션은 잘 안 팔린다고 한다. 유통되는 주택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분명히 '(표준적 행동으로서의) 보통' 은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본인에겐 당연한 속복도가 한국, 중국, 대만의 집합주택계획에서는 분명 평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왜 일본인은 속복도를 선호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또, 일본인은 어째서 남향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다타미(畳) 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점점 사라지게 되었는지, 일본인은 왜 현관을 버릴 수 없었는지와 같은 '보통' 의 것과 관련된 다양한 의문들이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은 고층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어째서 저층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지금은 병원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지만, 약 20 년 전의 고층집합주택에서는 승강기 설계 시관을 옮길 수 있도록 승강기 박스 뒤에 해치를 만들어 여차하면 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했어야 했다.

하지만 점차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혹은 병원에서 사망해도 유해를 일단 집으로 옮기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 언제부터인가 승강기 박스의 해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사망하도록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렇다면 다시 집에서 죽음을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었을 때 승강기 해치 문제는 재연될 것인가?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당연한 현상들은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어서 항상 새로운 대응법을 건축설계에 요구하는 일이 많다. 이 때 당연한 것을 잊고 설계하게 되면 거주자가 그 불편을 감당해야만 한다. 예전에 도쿄의 전통적인 지역을 재개발한 고층주택에서 오봉(お盆) 명절 때 무카에비(迎え火)와 오쿠리비(送り火), 즉 조상을 맞아들이고 다시 보내드리기 위해 피우는 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지역은 원래 나가야(長屋)라는 밀집된 공동주택과 골목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나가야의 주민들은 오봉이 되면 꼭 나가야 앞 골목에서 불을 피워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였다. 일반적인 고층주택설계자는 이러한 풍습을 무시한다. 그 결과 주민들은 베란다에서 조상을 맞아들이고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불, 즉 무카에비와 오쿠리비를 피우기 시작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보통의 집합주택설계가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그동안 당연히 해오던 행위가 올바른 것인가?

아마 둘 다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항상 '보통'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건축계획은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일본건축학회에서는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의 복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 복구라 불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작년 즈음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중 '일상생활의 회복이 복구'라는 의견이 새로이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일상성이란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건축계획 연구자들은 오늘도 또 '주거방식 조사'와 '사용방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통, 당연이라는 것에 물음을 던지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건축학의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